

지역 매아리

부안군, 주민대피훈련 실시

부안군은 최근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비상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부안교육청,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부안군보건의료센터, 읍면 주민 및 학생 등 3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 5월 한빛원전 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 주민이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계획구역의 지역인 행안면 소재 부안예술회관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구호물품 지급 및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과 교육자료 배부 및 안내, 교육용 동영상 시청,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임경천 군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방재계획과 매뉴얼 및 주민의 생명 보호를 중점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k-food 국제식품 산업전 참가

정읍시가 단풍미인소핑몰의 농특산품으로 전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 EXCO 전시장에서 열린 K-FOOD EXPO 대구 국제식품 산업전'에 참가했다.

K-Food EXPO 대구 국제식품 산업전은 대표적인 국제 박람회로 식품산업 최신 정보, 식품 산업체의 국내·외 판로 확보 등 최상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출과 내수 상담, 식품 세미나 등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전시회에서 단풍미인소핑몰 12개 업체의 귀리 참살떡, 쿠키, 쌀, 한과, 도라지 등 32개 상품을 전시했다.

더불어 전국의 방문객에게 단풍미인소핑몰 리플렛과 휴대용 그림 등 홍보용품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1천 800여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자생차 시음 행사와 꿀, 누룽지 시식 행사는 전시장을 찾은 세계인에게 뛰어난 맛과 우수한 품질로 호응을 얻었다.

단풍미인소핑몰 협의회 조영숙 회장은 "단풍미인소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박람회 등에 참여해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농특산물 지역 농산물의 이름을 떨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 보호

정읍시, 지원민방위대 응급처치 교육 성료

민방위 경진 훈련 병행... 전도사 역할 '독특'

정읍시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19년 정읍시 지원민방위대 응급처치 전도사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와 지진, 풍수해, 화재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심정지 사망사고와 골절, 화상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민 개방형 체험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여성민방위대원과 지원민방위대원, 지역민방위대원, 주부 직장인 등 1,1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의 이론과 실습, 방독면 착용과 재난대피요령, 화재 초동진압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이날 민방위 보충교육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전라북도 민방위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15명의 시 대표선수 훈련도 병행 실시했다. 시는 민방위 사태 시 인명구조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어린이와 청소년,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다양한 응급처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진·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폭발·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비요령 등 생활민방위 체험교육과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누에오디체험 명소로 '우뚝'

생태관광누에오디체험·저탄소 생태체험 명소 성장

버스·카풀 차량 이용 참가 등 탄소배출 현격히 감소

'고창 생태관광누에 오디체험'이 대한민국 대표 저탄소 생태체험지로 우뚝 서게 됐다.

고창군은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의 회가 진행하고 있는 '고창 생태관광누에오디체험'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 발자국 인증을 연장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고창 생태관광 누에오디체험'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마을 특산품인 오디를 수확하고 누에 먹이주기

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대상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체험객이 버스나 카풀차량 이용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 학생 1인당 9.92kgCO2(자카용 대비 87%감소)에 불과한 탄소배출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돼 2018년 첫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이후 고창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의 자연친화적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탄소인증을 받고 3년 만에 재평가를 통해 연장이 확정됐다.

고창군은 탄소발자국에서 더 나아가 '저탄소제품' 인증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체험 명소로 우뚝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이 앞으로 탐사트루지로서도 인증 받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치매안심센터 최우수 표창 '수상'

부안군, 치매관리사업기관 1위 달성

전북도지사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27일 전주 그린드림스튜디오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전북도지사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도내 전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인력·예산집행 현황, 인지증진 프로그램 진행 등 치매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7월 정식 개소해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 어르신 센터 운영,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다방면에서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2019년 전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전북도지사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현자 부안군 보건소장은 "부안군은 체계적인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소설가 황순원 '송아지' 인형극으로 재탄생

가족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 28일 고창소리문화의전당

고창군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소설가 황순원의 원작 '송아지'를 인형극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올레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인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고창문화의전당이 선정된 공연이다.

가족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는 소설가 황순원의 어린이를 위한 단편소설 '송아지'를 원작으로 한 이미지 인형극 이미지 음악극이다.

섬세한 분절인형들의 움직임과 배우들이 직접 들려주는 리코더 4중주로 주인공들의 애절한 이야기와 극의 서정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복합인형극이다.

6.25 당시의 어느 시골 소년 '돌이'와 '송아지'의 우정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을 서정적으로 그려내 만남, 길들임, 전쟁 그리고 이별...결국에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 내내 '돌이'와 '송아지' 그 둘의 순수한 사랑과 감동을 전할 계획이다.

이제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워진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 삼아 우정을 나누던 그때 그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순수한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작은 위로이자 어윤과 물림이 있는 가족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가 될 것이다.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소설가 황순원의 원작 '송아지'를 선보인다.

고창군 관계자는 "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를 통해 온 가족이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물론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시간은 약 60분 정도이며,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와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이다. 공연문의 : (063)660-8041. /고창=김영식기자

치매 환자 가족 응원프로그램

정읍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포옹' 큰호응 속마무리

정읍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준비한 치매 가족 응원 프로그램 '포옹 2기'가 참여자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포옹'은 치매를 돌보는 가족 간의 정서 교류를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총 8번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치매골든벨', '우리 이렇게 해봐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라인댄스 프로그램으로 일상을 잠시 떠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정서적 친구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치매 가족 응원 프로그램 '포옹'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가족은 정읍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3-639-691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